

navien

Premium Living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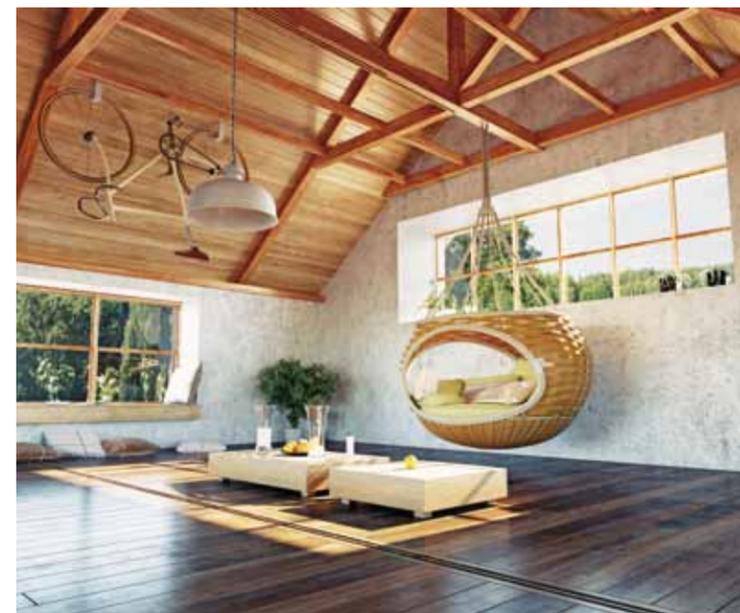
Vol.
140
2016 SUMMER



navien

Premium Living MAGAZINE Vol.140
SUMMER 2016

Contents



- 04 House Of Temptation | S.V House
- 10 Hobby of Honors | 에코캠핑
- 12 Space Environment | 주방
- 16 Trend
- 20 Life & Style | 로맨틱 에코 하우스
- 24 Housing History
- 28 NAVIEN Story
- 32 Tips | 친환경 원목 가구
- 34 News
- 38 Readership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리빙 매거진 **navien** 발행일 2016년 7월 12일 발행인 최재범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매거진 담당 홍보팀 이수용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496 팩스 02-3489-2221

 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

S.V. House

DESIGNSTUDIO: A-cero, Joaquín Torres & Rafael Llamazares architects

LOCATION: Sevilla, Spain

PHOTO: Victor Saj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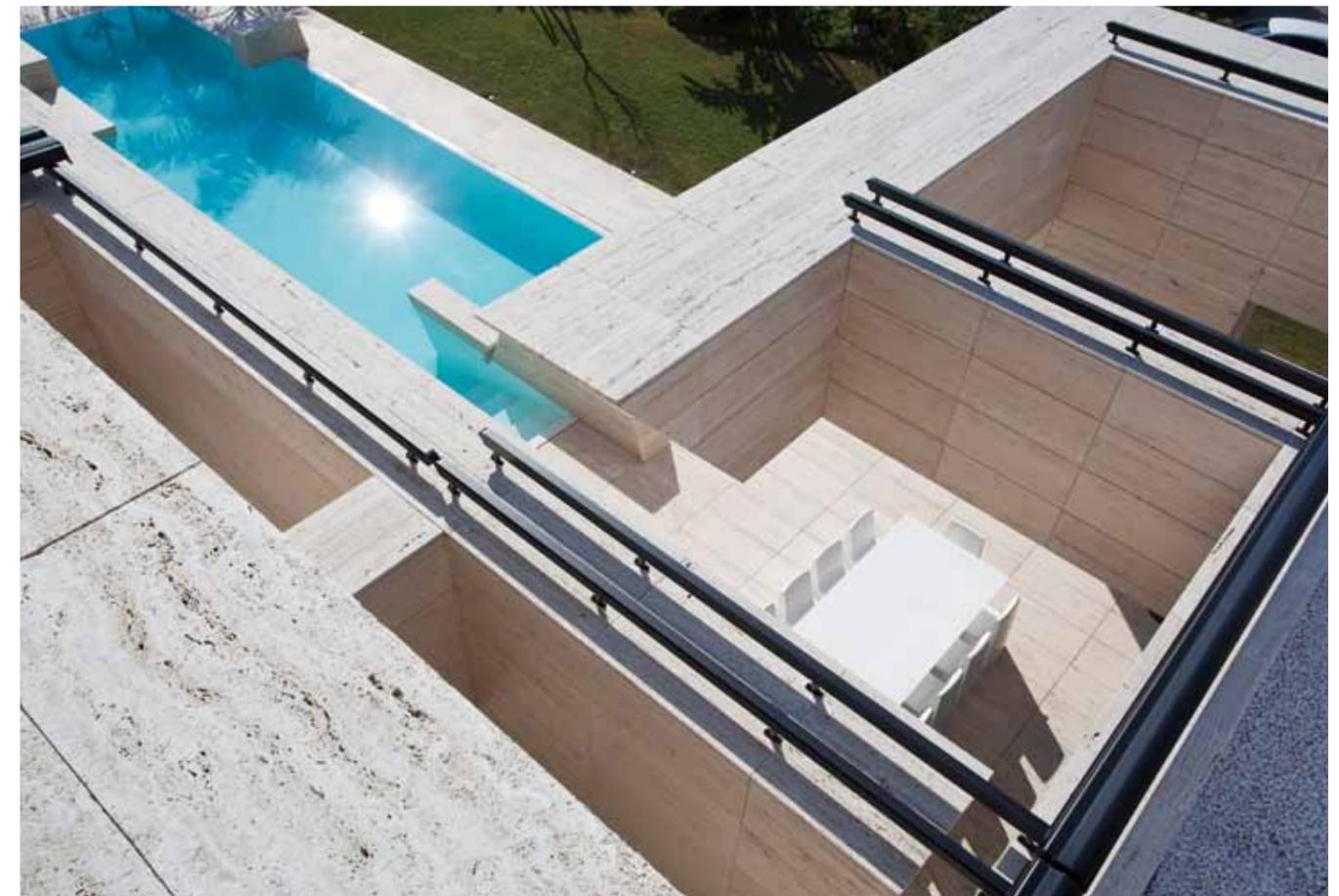
건축 스튜디오 A-cero가 S. V. House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은 독창적이고 현대적이면서도 기후와 환경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었다. S. V. House는 스페인 남서부에 위치한 세비아에 세워졌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시작된 곳이자 그의 묘가 있는 곳, 플라멩코와 투우하면 생각나는 낭만적인 도시 세비아는 사실 스페인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도시다. 가장 더운 7~9월에는 최고 기온이 40°C 가까이 오르는 덥고 건조한 도시에 세워진 S. V. House에서는 환경에 적응한 친환경적인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뜨거운 햇볕과 건조함이 특징인 도시의 기후를 고려해, 공간의 내외부에 항상 적당한 양의 그늘이 만들어지도록 계획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벽면과 기둥, 표면에서 내부로 다소 들어간 듯한 유리창 덕분에 풀(Pool)과 테라스, 실내에 언제나 적당한 양의 그늘이 있는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S.V. House
by Joaquín Torres & Rafael Llamazares
architects of A-Cero

A -cero는 호아킨 토레스(Joaquin Torres)와 하파엘 라마자레스(Rafael Llamazares)가 함께 설립한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클래식 디자인은 물론, 최근의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심플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며 틀에 박힌 디자인이 아닌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상상의 한계를 횡단하는 디자인'이라는 모토로 새로운 실험과 도전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작은 바(Bar)와 주택은 물론 거대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다.



건물의 지하에는 다용도실과 주차장이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식료품을 저장하고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다. 거실과 다이닝 룸이 있는 1층은 온 가족이 쉽게 모일 수 있도록 커다란 소파를 배치하는 한편 풀, 테라스, 주차장, 옥상 등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1층에는 거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거실을 여러 개 만들었다. 가족이 쉽게 한곳에 모일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이너의 배려다. 화이트를 베이스 컬러로 사용한 공간에 독특한 조명과 가구를 더해 감각적이고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했다. 기후를 고려한 적당한 높이의 층고가 1층 거실은 물론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기도 한다. 천장의 작은 채광창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날씨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집에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도 적당한 채광을 고려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1등 보일러를 영어로 하면 미국에서도 **NAVIEN**입니다

[美 콘덴싱 가스보일러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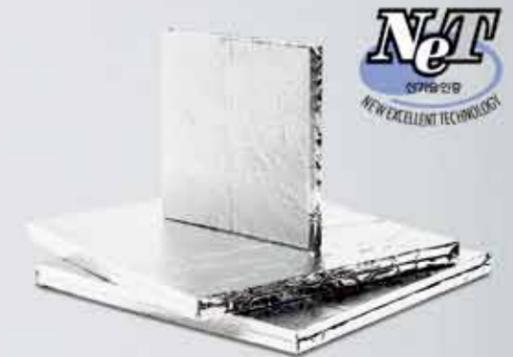
북미 시장을 석권한 경동나비엔!
국가대표 보일러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보일러를 이끌어갑니다



·나비엔 프리미엄 보일러 NCB900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성능 흠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PREMIUM QUALITY

· 미국기계학회(ASME) 인증* 제품
*보일러 및 온수기 등 압력용기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품질 인증 규격

PREMIUM SYSTEM

· 대형고급주택에 알맞은 난방시스템 최적화/대용량 설계
· 온수품질에 민감한 미국에서 인정받은 온수 제어 기술

PREMIUM SERVICE

· 프리미엄 전용 고객센터 운영 (1661-1144)
· 제품 5년, 열교환기 10년 무상보증 선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전용 라인 1661-1144

*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 2013~2014년 북미 콘덴싱 가스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냉난방기기 전문 컨설팅회사 BRG Building Solutions 자료 기준)

In Harmony with *Nature's Rhythm*



이곳에서는 온 종일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하고 휴식만 취해도 충분히 행복하다. 밤이면 밤하늘이 환히 보이는 별빛 아래 침대에서 잘 수 있으며, 아침에는 개인 발코니에서 화려한 일출을 바라볼 수도 있다. 또 파타고니아의 긴 태양 아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빙하에서 밀림과 사막까지, 펭귄에서 토끼와 여우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와 사파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저녁마다 여행자들이 교류를 나누는 퓨전 레스토랑 바에선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토레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만난 에코캠프 파타고니아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파타고니아(Patagonia)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카웨스카르(Kaweskars)라 불리는 원주민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왔다.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토레 델 파이네 국립공원(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에 지어진 에코캠프 파타고니아(EcoCamp Patagonia)는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다. 원주민 카웨스카르의 움막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건물들과 캠프 내의 모든 시설은 친환경적이며 안락하다.



실용과 화목의 수호자, **주방**

돌아온 대화의 공간



주방은 본질적으로 식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정하게 요리하는 부부와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주방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것처럼 말이다. 사실, 한 세기 전만 해도 주방은 하인들이나 드나드는 하찮은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오늘날의 주방은 집의 중심부이자 일차적인 소통 공간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주방은 따뜻하고 온화한 '가정성의 상징'과도 같다.

인류가 처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주방과 침실의 구분이 없었다.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간의 중심부에는 불이 있었다. 난로, 화로, 모닥불 뭐라고 부르든 공간의 중심에 불이 있었고 그 불로 요리를 하고 몸을 녹이고 불을 밝혔다. 유럽에서는 중세까지도 집 중앙 홀에 불을 피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의 중심이었던 주방이 주택의 주변으로 밀려났다. 가장 큰 이유는 화재의 위험이었다. 불은 요리와 추위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귀족의 저택, 궁전에서는 주방을 따로 지어진 건물로 쫓아냈다. 특히 주인의 신분이 높을수록 주방과 저택의 거리는 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방을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쓰레기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품격있는 생활 공간과 주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품격있는 생활 공간과 주방이 어울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였다. 빵을 굽는 냄새, 찌개를 끓이는 냄새와 같이 오늘날 좋은 냄새로 여겨지는 것들을 당시에는 불쾌하고 더러운 냄새로 여겼던 것이다.

19세기까지 품격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져 지하와 밖으로 쫓겨나기만 했던 주방은 20세기에 들어 다시 주택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부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노동인구가 줄고 인건비가 올라 주방에 들어설 엄두조차 내지 않던 가정의 안주인도 이제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는 환풍기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환풍기의 등장과 발전으로 불쾌한 음식 냄새가 집 안으로 퍼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도시형 공동 주택을 시작으로 작은 공간 안에도 주방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영국에서는 예전 양식의 도시형 연립 주택을 개조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바로 현대적인 오픈 플랜식 디자인의 등장이었다. 더 이상 주방을 더럽거나 품격이 떨어지는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이 주방에 드나드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되었다. “식사 공간을 종일 사용할 수 있도록 거실과 식당, 주방과 식당을 조합하는 방식의 가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디자인 브랜드 해비타트가 자신들의 주방 용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한 1970년대의 문구다. 가정부와 하인의 공간이었던 주방이 드디어 가족의 공간이 된 것이다.

오랫동안 주방의 최우선 가치는 실용과 효율이었다. 불을 다루고 음식을 만드는 주방은, 일종의 기관실과도 같은 곳이었다. 승객이 아닌 선원이 가는 곳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방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작업, 요리가 이루어지는 실용적인 곳이며 동시에 온화하고 단란한 가정을 상징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가족사진과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는 가스레인지가 바로 지금의 주방을 대표하는 장면일 것이다. 냉장고라는 실로 차가운 기계에 붙여진 행복한 가족사진이야말로 오늘날의 주방 그 자체다.

SPACE environment



구루루 보우헤드 테크놀로지

구루루(Gululu)는 평범한 텀블러가 아니다.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마트 텀블러다.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과 모션 센서, 와이파이를 내장한 구루루를 진정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때 유행했던 다마고치처럼 '디지털 펫'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구루루에 내장된 센서가 아이가 마시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그만큼 디지털 펫이 성장한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펫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구루루에는 학교 수업 시간과 수면 시간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스쿨모드(School Mode)와 슬립모드(Sleep Mode)도 있으니 학업이나 수면을 방해할 걱정도 없다.

Keep Kids Hydrated(www.mygululu.com)



햄넛홈 스웨덴의 탐 & 비데고르드 아키텍터

통계학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스웨덴의 탐 & 비데고르드 아키텍터(Tham & Videgard Arkitekter)가 설계한 햄넛홈(Hemnet Home)은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2백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을 구현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기반해 방의 크기, 방의 수는 물론 주방의 형태와 창의 크기 등도 결정했다.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개방형 주방을 위해 커다란 창문을 만들고, 천연 자재를 사용한 회색 톤의 단색 가구로 공간을 채웠다. 나무 바닥으로 만들어진 침실은 밝고 통풍이 잘 된다. 빨간색 나무판자로 꾸민 외관과 자전거 거치 공간도 사용자의 요구에 근거한 설계의 결과이다.

Tham & Videgard Arkitekter(hemnethemmet.se)



플라워 파워 패럿

패럿(Parrot)에서 판매하는 플라워 파워(Flower Power)는 식물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기기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 식물에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을 주는 시기와 양, 햇빛의 세기와 주변 온도, 토양 안의 영양 상태까지 다양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도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약 7,000종 이상의 식물을 위한 전문가의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어 실내와 야외, 꽃과 채소 등 다양한 환경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Y 자 모양의 귀여운 외모와 작은 배터리 하나로 6개월을 작동하는 성능도 매력적이다. 애꿎은 식물을 죽이고 싶지 않거나, 혹은 영화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고 싶다면 플라워 파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Assess Your Plants' Needs(www.parrot.com)



똑똑한 그녀가 선택한 스마트홈 세상! NAVIEN Home IoT



UHA-1020V | 25.6cm(10.1형)

- 방문자 영상통화기능**
외출시에도 내 집 방문객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 보일러제어**
켜고 끄고 온도조절까지 집 밖에서 보일러를 내 마음대로!
- 가스밸브제어**
깜빡하고 켜 두고 나온 가스불도 걱정없이 집 밖에서 OFF!
- 홈기능**
홈도 내장 카메라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조명제어**
슬데없이 켜져 있을지 모를 전등, 집 밖에서 OFF!
- 시큐리티기능**
침입자, 비상상황 발생시 내 스마트폰에 경고알림!

Good Design Award 2015 최우수상 수상
iF Design Award 2011/2012/2014 디자인상 수상



경동원 대리점 모집
경동원과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갈 가족을 모십니다.



제품 구입 및 A/S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144

경동원

로맨틱한 분위기의 에코 하우스, 우리집 인테리어

TIP 원목가구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물질인 피톤치드가 나와 건강에 좋고, 오래 쓸수록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

집안 곳곳에 사랑스러운 컬러를 사용해 신혼집처럼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특특튀는 발랄함과 개성이 느껴지는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대부분 원목 가구를 사용했다.



주방에는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 때문에 식탁을 놓을 여유 공간이 없어 공간을 비교적 조금 차지하는 아일랜드형 식탁을 배치했고, 이 공간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에 많이 신경 썼다. 커다란 전면 창 덕분에 별이 잘 들어 집이 환하다. 천장에 실링 팬을 설치해 더욱 시원한 느낌과 함께 공간에 높이감이 생겼다. 복층 구조의 집이고 천장고가 높아 자칫 공기의 순환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실링 팬을 설치해 집 안 전체의 공기 순환을 도왔다. 거실의 긴 원목 테이블은 담소 공간인 동시에 거실과 주방,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거실 아트월은 벽면을 가득 채우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 일부러 좁은 공간에만 포인트가 되도록 작업했다. 천장 마감재는 얇고 긴 소재로 통일해 넓고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며, 밝은색의 벽지를 선택해 집이 더욱 환하고 넓어 보인다.



조리 공간을 위해 개수대의 위치를 옮겼다. 부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냉장고 측면을 가리기 위해 유리 타공한 가벽을 세워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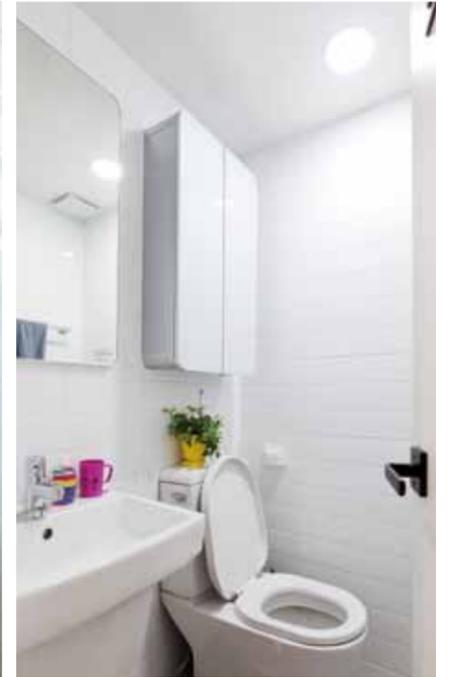
복층 계단 아래쪽 남는 공간에는 수납장을 만들었다. 수납공간은 많을수록 좋다.



복층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방으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캠핑장의 느낌을 주기 위해 인조잔디를 깔았다.

복잡하고 알록달록한 아이들의 침이 아래로 내려오면 금방 어수선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복층 내에서 아이들의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양쪽 벽에 수납장을 넉넉히 설치했다.



안방과 아이 방에는 대부분 원목 가구를 사용해 가족의 건강을 신경 썼으며,

맞춤 가구를 배치해 가구가 공간에 꼭 맞는 완벽한 느낌을 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아이 방의 벽지 컬러로 선택해 아이가 방에 애착을 둘 수 있게 한다.

온돌과 보일러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

전통적인 온돌 난방은 불을 때어 방바닥 아래의 구들을 데우고 이때 발생하는 복사열로 방안의 온도를 조절했다. 한국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온돌은 습도와 통풍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분진을 적게 배출하고 높은 열효율을 달성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동시에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었다. 지금은 바닥에 직접 불을 피우지 않고 별도의 가정용 보일러를 이용해 원하는 난방수의 온도를 맞추는 '온수 순환식 바닥난방'이라는 방식을 널리 사용한다. 이는 한국 전통의 온돌 문화와 서구의 보일러 문화가 합리적으로 결합한 방식이다.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과 서구에서 유입된 보일러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융합된 것은 아니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연탄과 석유, 가스로 연료가 변하고, 방바닥으로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방고래에서 온수가 통하는 파이프 형태가 변하는 동안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또 해결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연탄을 연료로 사용할 때 생겼던 '연탄가스 중독'이었다. 연탄을 사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유출이라는 문제를 만들었다. 온돌을 구성하는 '구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이후 온돌, 구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61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연탄을 사용한 가정용 보일러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아궁이에 연탄을 넣고 불을 피운다는 것은 이전과 같았지만,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개발한 온수 순환식 바닥난방 방식을 사용해 연탄가스의 실내 유입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때부터 연탄을 사용하는 아궁이식 개량온돌이 점차 가정용 보일러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새마을 보일러', '중앙 난방식 연탄보일러'를 지나 1970년대 중반 기름보일러가 등장했다. 기름보일러는 연탄보일러의 단점을 대부분 보완할 수 있었지만 기름보일러가 전국 대부분의 연탄보일러를 대체한 것은 1980년대가 되어서다.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온수매트
NAVIENT MATE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8% 차지 (2016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가대표 보일러의 온도제어 기술이 그대로!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킨 경동나비엔의 정밀 온도제어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100% 순면 로가닉 소재의 프리미엄 매트/커버
친환경 프리미엄 매트 '크림하우스'와 함께 개발한 매트/커버는
스티워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비엔만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나비엔 행복나눔센터(1588-1144)를
통해 AS 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가장 스마트한 대안, 이열치열(以熱治熱)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사롭고 화사하던 봄도 잠시뿐, 시간은 다시 분주하게 달려, 젊음을 닳은 뜨거운 태양과 열기로 가득한 여름으로 향한다. 특히나 올해의 이른 무더위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여름을 실감하게 했다.

여름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단연 '온도'다. 쏟아지는 햇볕을 피해 그늘로만 들어가도 시원해지는 불볕더위를 지나, 마치 뜨거운 사우나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찜통더위를 마주하면, 누구나 더위를 피해 행복한 온도를 찾아갈 방법을 찾는다. 수박, 아이스크림, 냉면, 팔방수 등 시원한 여름 음식으로 잠시 더위를 잊어도 보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나날이 더워지는 지구 앞에 더 이상 창문을 열고 버티는 여름은 힘들어졌고, 결국 냉방기기에 SOS를

구한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우는 보일러처럼, 이제 더운 여름을 식히는 냉방기기도 우리 삶 속에 떨 수 없는 일부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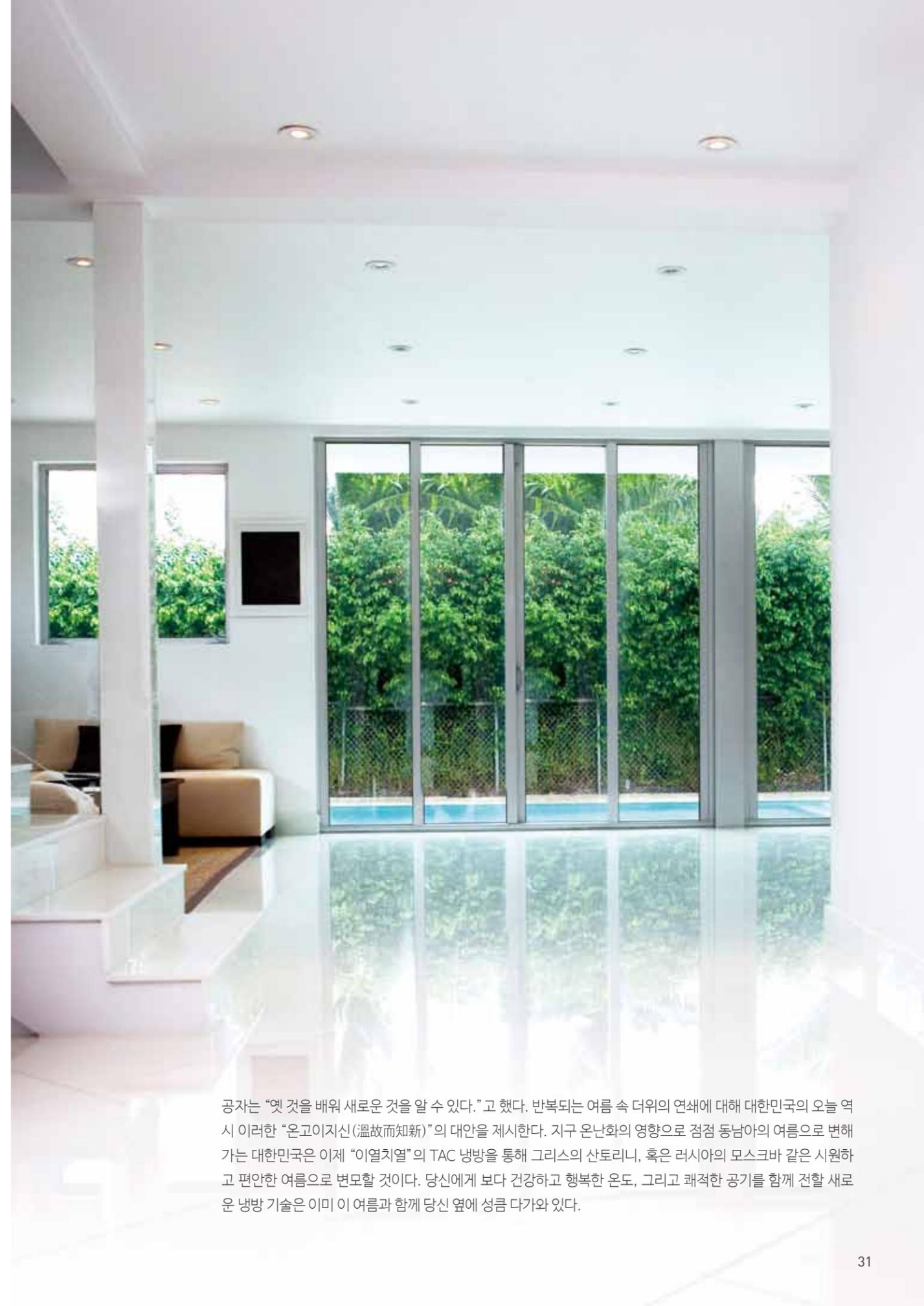
하지만 여기에서 머리를 싸매게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더위를 피해 행복한 온도를 만들고자 켜놓은 에어컨은 이미 당신이 경험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쾌적한 삶을 위한 많은 부분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차가워진 공기와 함께 더욱 건조해진 공기는 시원함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꼭꼭 닫아둔 실내에 머물며 점점 탁해지고, 지나치게 차가워진 공기와 나빠진 실내 공기는 냉방병이라는 불편한 선물을 안기곤 한다. 더구나 늘어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마치 홈쇼핑에서 자주 만나는 '1+1 상품'처럼 잊지도 않고 따라온다.



피부에 당장 와 닿지는 않지만 더욱 골치 아픈 문제도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이 더위를 버티기 위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에어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에너지 기기 중에서도 효율이 낮아, 에너지 자원이 한정돼 있는 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행복한 온도를 만드는 냉방기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다행인 것은 이 슬픈 현실의 고리를 끊는 반전 역시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그 열쇠는 놀랍게도 “열”이다. 더운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드는 습기를 열로 증발시키면 공기 중 유해 세균은 제거하면서 실내 공기는 시원해진다. 더불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실내공기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의 맑은 공기를 들어오고, 적당한 습도를 더해 누구에게나 건강한 공기를 선사한다. 보편화된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환기 기능 없이 실내 공기를 무환순환시킴으로써 공기질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냉방과 환기를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최적의 공기 질을 구현한다. 여름이면 남아도는 열을 냉방에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도 줄어들어 일석이조다. 마법처럼 현재의 고민들을 모두 해결하는 만능열쇠, 행복한 온도와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구현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 바로 열을 통해 냉방을 구현하는 “이열치열”인 것이다.



공자는 “옛 것을 배워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여름 속 더위의 연쇄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늘 역시 이러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대안을 제시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동남아의 여름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열치열”의 TAC 냉방을 통해 그리스의 산토리니, 혹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같은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으로 변모할 것이다. 당신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온도, 그리고 쾌적한 공기를 함께 전할 새로운 냉방 기술은 이미 이 여름과 함께 당신 옆에 성큼 다가와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한 발자국, 원목가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집 안을 가장 쉽게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면역력 증강부터 심신의 안정,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책임지는 원목 가구가 그 대안이다. 나뭇결, 수축, 팽창 등 나무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목재를 이용해 만든 식탁, 침대, 화장대, 책상, 의자 등을 원목 가구라 한다.



© johnkellyfurniture.com



TIP. 원목 가구는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해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받는다. 봄, 여름인 우기에는 원목이 수분을 흡수 팽창하기도 하고, 가을과 겨울인 건기에는 수축하는데, 이런 원목의 고유현상을 반복하면서 안정화 된다. 환기와 적절한 실내 습도가 유지된다면 더욱 좋다.



가공 목재로 만든 가구보다 훨씬 견고하고 건강에도 좋은 원목 가구는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은은한 나무 향으로 안정감을 준다. 저렴한 MDF나 PB 가구는 접착제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접착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다량으로 방출된다거나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원목 가구는 주로 소나무나 삼나무로 만들어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피톤치드가 방출된다. 피톤치드는 곰팡이와 세균의 서식을 예방하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 아토피나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원목 가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오래 쓸수록 특유의 깊이감과 고급스러움이 한층 짙어진다는 것이다. 단단한 원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멋스럽다. 원목 가구가 지닌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는 집안을 건강하고 아늑하게 만든다. 또 실내 소음을 흡수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오래 쓸수록 더 매력적인 원목 가구는 자연주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친환경 가구로, 답답하고 바쁜 도시 환경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안정과 건강한 삶, 쾌적한 삶을 선물할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에 보일러 1천대 설치



경동나비엔이 4월 6일 주한미군 미 2사단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 상업용 보일러 시스템인 '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1차로 보일러 532대를 설치했다. 미군 관계자들은 제품의 경제성과 안정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친환경성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소형의 콘덴싱보일러나 온수기를 여러 대 연결한 난방 및 온수 시스템으로, 중대형 보일러와 달리 제품의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난방과 온수공급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대형보일러에 비해 약 20~40%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및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커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미군기지의 경우 남은 시공을 마치고 나면 약 1천 대 규모의 보일러가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친환경 고효율의 콘덴싱보일러 놓아드립니다”



경동나비엔이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친환경 고효율의 콘덴싱보일러 지원 사업에 나섰다. 서울시 주관의 이번 사업은 일반 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해 구입 차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최대 1,000가구까지 거주지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콘덴싱보일러는 배기가스 속 숨은 열을 한번 더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보일러로, 유럽에서는 국가적 보급 지원책이 제도화되어, 보급률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됐다. 국내에서는 경동나비엔이 지난 1988년 아시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현재 북미 시장 콘덴싱보일러 및 온수기 1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콘덴싱 명가로 인정받고 있다.

‘2016년 캐스케이드 & 시스템 각방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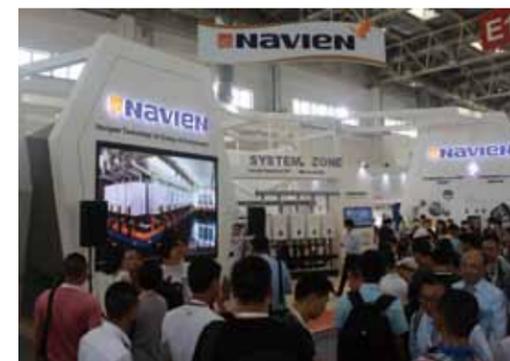
경동나비엔이 전문시공인 대상의 '2016년 캐스케이드 & 시스템 각방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6월 7일부터 21일까지 5회에 걸쳐 경동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모집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관한 교육은 물론, 각 방 별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각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진행한 이번 과정은 실제적인 제품 실습과 전문지식 교육을 병행하여 업계 최고의 시스템 관련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중국 하북지역 총대리상과 3년간 1500만불 MOU 체결

지난 5월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Good to Great Business Plaza 2016' 행사에서 경동나비엔이 하북지역 총대리상과 3년간 1500만불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초청행사로 월드챔프 및 세계일류상품 기업 50개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31개국에서 방한한 바이어 56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참가기업 50개사 가운데서도 핵심기업으로 선정된 경동나비엔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중국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최대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China&CIHE 2016' 참가



경동나비엔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최대 규모의 냉난방 공조 전시회 'ISH China&CIHE 2016'에 참가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콘덴싱 기술'을 콘셉트로 전시부스를 꾸민 경동나비엔은 소비자에게 고효율 친환경의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편의성까지 크게 높인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선을 모았다. 지난 1분기 중국에서 전년 대비 88.6% 성장세를 기록한 경동나비엔은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국가 가스 검측센터(CGHC)'가 선정한 가스보일러 10대 브랜드에 선정되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무기계 마스틱 내화도로 'MASCOAT-F', 2시간 신규 내화구조인정 획득



경동원의 무기계 마스틱 내화도로 'MASCOAT-F'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2시간 내화구조인정을 획득했다. 내화도로란 철골 기둥 및 보에 도포하는 건축 자재로, 화재 발생시 뜨거운 화염에도 견딜 수 있어 건물의 붕괴를 지연시키고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동원 세라텍사업부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계 마스틱 내화도로 'MASCOAT-F'는 주재료가 무기질로 구성된 NO VOCs 제품으로, 타 업체들과 달리 유기 에폭시계 내화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2시간 동안 화염 속에서 버틸 수 있다. 또한 타 제품과 달리 하도와 Mesh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작업 속도가 빠르고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여 시장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통합경영시스템(Q-HSE)인증 취득



경동원 세라텍사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D.N.V GL인증원으로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품질경영시스템(KS Q ISO 9001) 인증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까지 확장하여 취득했다. 1998년부터 ISO 9002를 취득하면서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해온 경동원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 오염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제41회 MBC건축박람회'에서 홈 IoT 기술 선보여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가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41회 MBC건축박람회'에 참가했다. 홈 IoT 선도기업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에서도 Io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특히 '나비엔 IoT 홈 오토메이션(UHA-1020)'은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일러, 조명, 가스밸브 제어 및 침입 감지가 가능하며, 별도 CCTV 설치 없이도 홈오토 내장 카메라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포럼과 기업 초청 설명회 통해 중국 CEO들 사로잡아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가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서울포럼 2016'에 참여해 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경동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방문자 영상통화는 물론, 덕내 영상 확인, 가스밸브와 조명, 난방까지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스마트홈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서울포럼 2016'의 부대행사인 '한·중 하이테크 포럼'에 참가한 중국기업 CEO 및 중국 정부 기관 관계자 20여 명을 본사로 초청해 IoT 첨단 기술력을 뽐내며 위상을 과시했다.



독자와 NAVIENT이 함께 만드는
READERSHIP



추첨을 통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인테리어 강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프리미엄리빙매거진 **NAVIENT**의 인증샷을 찍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보내 주세요.
읽고 난 느낌, 다뤄봤으면 하는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우리집 경동나비엔 제품 인증샷을 찍어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마감 2016년 8월 20일 보내실 곳 style3@kdiwin.com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6층(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홍보팀 매거진 담당자 앞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www.kdnavien.co.kr

왜 세계적인 랜드마크는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선택했을까?

세계적인 콘덴싱 기술력과 대수제어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최첨단 유지관리 시스템까지 갖춘 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이제, 미국 메리어트 호텔과 프린스턴 의과대학 등
세계적인 건축물이 경동나비엔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 경동나비엔 캐스케이드 시스템 :: <http://www.cascade.co.kr>

건축주가 찾는 시스템

- 에너지 절약 효율을 콘덴싱 기술 / 필요한 만큼만 운전하는 대수제어
- 유지관리 항상 법정관리자 불필요 / 일부 고장에도 운전 가능
- 쾌적성 향상 조용한 운전 / 순간급량 방식 / 원격제어 시스템

건설사/설계사가 찾는 시스템

- EP/접수 획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비례 및 다단계제어 운전
- 투자비 절감 저렴한 장비 단가 / 설치공간 최소화
- 시공성 향상 이설 및 증설 용이 / 일체화 모듈 / PVC연도 적용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8% 차지 (2015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밖에서도 쫓다 쫓다...
보일러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 원격 제어 보일러로

대한민국 보일러를 또 한번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나비엔 콘덴싱 스마트특] 가스보일러
언제 어디서나 보일러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개념 보일러

*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국내 보일러 및 가스공수기 수출액의 9.8% 차지 (2015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